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음 11월 5일) 제19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가장 한국적인 전북’ 베트남에 전파 전북도와 탁락성간 우호협약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공식일정 첫날인 21일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박노완 호치민 총영사와 즈영 이인 화 호치민시 관광부국장, 응웬 비오 이인 호치민시 관광프로모션 부센터장 및 홍보관계자 500여명을 초청하여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갖고 가장 한국적인 전북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국비 지원을”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광역시에만 적용 혼잡도로 선정 기준 확대 법 개정 촉구
“대중교통 거점지 혼잡도가 6대 광역시보다 훨씬 극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 받아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33차 월례회의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광역시 동(洞) 지역의 도로로 제한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동(洞)으로 확대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해당 도시들에 대해 적절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2015년 조사한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서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6대 광역시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중교통 거점지 및 인근도로의 혼잡도가 훨씬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도시의 교통혼잡 비용이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교통 혼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내년 전주시 살림살이 1조5258억원

시의회 심의 거쳐 본예산 확정... 전년보다 961억원 증액
복지재단 운영·아동수당 등 복지예산 5866억원 편성
사회적경제 육성·신성장 산업 등 위해 687억원 책정

등 9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점인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어 문화가 힘이 되고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과 사람중심으로서의 생태교통 시스템 실현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593억원 △에너지 자립 및 자연순환형 도시 55억원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172억원 △창조적인 전주형 도시재생 171억원 △사람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466억원 △쾌적한 도로환경제공

468억원 등 2,526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특히, △전주형 사회적경제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687억원의 예산도 책정돼 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매출 증대와 고용증가, 지역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 경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관광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함께하는 복지 등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 내년도 전주시 살림규모가 총 1조5,258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1조 5,258억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조 4,297억원)보다 961억원(6.72%) 증액된 규모다.

단 전주시민 운영 4억원 △신설된 아동수당 182억원 △선미촌 탈성매매 여자활자지원 강화예산 1억9,000만원 등 △청년 지원예산 5억원 등이다. 또한, 시는 △전라각영 재창조 복원 36억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28억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12억원

일반회계는 1조3,258억원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1조2,186억원)보다 1,072억원(8.80%) 증가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전주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실현 등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5,866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복지재

군산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광병선 교수, 1순위로 선출
21일 열린 군산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광병선 법학과 교수(58·사진)가 1순위로 선출됐다. 제8대 총장의 임기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광 총장 임용후보자는 ‘사람으로 세상을 있는 SMART KNU’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대학브랜드 특

화, 협력적 대학문화 조성, 교육역량 강화, 양성평등의 대학문화 정착,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연구지원 체계 강화, 교직원 복지후생 확대, 연구성과 확산 등을 내놨다. 중점과제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평가방법 간소화 ▲우수인재 집중 육성 ▲학생상담 강화



▲학생 급식 품질 향상 ▲새만금 캠퍼스를 통한 산화 연구기반 구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씨앗연구비 신설 ▲교수 연구보조원 지원 ▲퇴직 교직원을 위한 은퇴 프로그램 운영 ▲전임교원 초과 강의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AI 확산 방지’... 전주시 제야행사 전면 취소

전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제야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야축제 개최를 준비했던 만큼 아쉬움도 있지만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민들께서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정책 등을 고려해 올해 제야 축제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야축제 개최를 준비했던 만큼 아쉬움도 있지만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민들께서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크리스마스 연휴로 12월 25일까지 신문 쉽니다.

당초 전주시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사장소 역시 농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야축제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AI 위기를 극복하고자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정부의 AI 확산 방지

매일 INDEX
7면 - 내년 본 예산 식감 조합원 항의

국립승마센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